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7.18(금) ~ 2025.7.24(목)

제공일시 2025 8 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7.18(금) ~ 2025.7.24(목)

제공일시 2025 8 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 글로벌 정책

### 1. 온실가스 규제 완전히 사라지나?...트럼프 행정부 '위해성 판단' 폐기 추진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가 된 '위해성 판단' 폐기 초안을 마련했음
- 해당 판단은 온실가스를 공중보건에 해로운 물질로 규정한 과학적 선언으로, 각종 환경 규제의 기반이 됨
- 초안에는 전기차 전환을 유도한 배기가스 배출 제한 규정 폐지도 포함됐으며, 백악관 승인 후 공개될 예정임. 환경단체와 전직 EPA 고위 인사들은 해당 조치가 과학과 법 모드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음

[\(YTN 2025.7.23\)](#)

### 2. "아마존·넷플릭스 긴장해"...EU, 美관세 초강경 대응 논의 급물살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30% 상호관세 위협에 맞서 '반강압 수단(ACI)' 발동을 본격 논의함. ACI를 사용하려면 EU 27개 회원국 중 가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15개국 이상 찬성이 필요함
- 23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해 ACI 도입에 필요한 회원국 지지를 확보 중이며, 디지털 서비스 부문까지 보복 대상으로 검토 중임
- 협상 결렬 시 미국산 청바지·닭고기 등 210억유로(약 34조원) 규모의 2차 보복관세와 함께, 아마존·넷플릭스 등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 가능성이 제기됨. ACI가 적용되면 EU 시장 접근 제한, 지식재산권 규제, 온라인 광고 과세 등도 포함될 전망임

[\(뉴스1 2025.7.23\)](#)

### 3. EU, 렌터카-대기업에 2030년 ZEV 의무화 추진...신차 시장 60% 전환 예고

- 유럽연합(EU)이 렌터카 업체와 10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2030년부터 무배출차(ZEV)만 신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임
- 이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금지에 앞선 조치로, 기업용 차량 시장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중간 목표임
-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 신차 시장의 약 6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유럽 자동차 업계는 비용 부담과 고용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집행위는 여름 말 초안을 공개하고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2025년 8월 15일경부터 공공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임팩트온 2025.7.21\)](#)

## 국내 정책

### 1. 기후에너지부 재편 속도 낸다... "정부 내 리더십 발휘 위해 부총리급 격상"

- 정부가 환경부와 산업부의 기후·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개편 작업을 본격화했음. 환경부의 '기후 분야'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결합해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취지임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 확정을 대통령실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환경부에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하는 방안과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합쳐서 새 부처를 만드는 방안임

- 기후단체들은 해당 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예산·전력산업 개편 권한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환경단체인 녹색전환연구소는 2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조정력 확보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과 재정 권한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했음

[\(한국일보 2025.7.23\)](#)

### 2. "공급망 위험 관리"...기재부, 조기경보시스템 전산화 추진

- 기획재정부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의 전산화 작업에 착수하며 연내 시범 운영, 내년 초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2021년 11월부터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기존 수기 기반 시스템은 보안성과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음. 공급망 조기경보 전산망은 부처별로 흩어진 공급망 정보를 연계하고 민간 기업과 외국의 정책 동향 관련 정보도 통합 관리할 예정임

- 정부는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범정부 차원의 정보 공유 체계로 기능을 강화할 방침임

[\(CBS노컷뉴스 2025.7.21\)](#)

### 3. 도입 3년만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손질한다

- 정부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함. 기후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3년 전 도입됨

-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정성적 판단 중심의 기준이 문제로 지적되자 환경부가 개선 로드맵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현행 기준상 면적 요건도 실제 개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임

- 환경부는 기후변화 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총 4회 이상 개최하는 등 제도의 향후 운영 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수단 대안, 시기 대안 등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임

-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임

[\(대한경제 2025.7.18\)](#)

## 글로벌 기업

### 1. 미쓰비시상사-에네오스, 美 하와이에 150억엔 투자... '지속가능 항공유' 공동생산

- 일본의 대표 종합상사인 미쓰비시상사와 정유 대기업 에네오스 홀딩스가 지속가능 항공 연료(SAF)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닛케이가 22일(현지시각) 보도함

- 두 회사는 미국 하와이의 현지 정유사 파 퍼시픽 홀딩스와 합작법인을 세우고, 총 150억 엔(약 1410억 원)을 투자해 2025년 안에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음. 3사는 파 퍼시픽이 하와이 오아후섬에서 운영하는 카플레이 정유소를 개조해, 해마다 15만 킬로리터의 SAF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갖출 계획임

[\(글로벌이코노믹 2025.7.23\)](#)

### 2. 현대차 포함 자동차연합, EU에 수소차 활용 확대 촉구

-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얼라이언스(GHMA)'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 2040년 탄소배출을 9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음

- 실행 방안으로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해 전기차와 더불어 탄소중립 이동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요청함. 서한에는 현대차와 BMW, 토요타 등 37개 이상 글로벌 기업이 서명했음

[\(전자신문 2025.7.23\)](#)

### 3. "석유화학 수익 견줄 신사업"... 릴라이언스 청정에너지 100억달러 투자에 낙관론 확산

- 인도 대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인도 구자라트주에 건설 중인 기가팩토리 단지는 테슬라 네바다 공장의 4배 규모로, 통합형 태양광·배터리 생산체제를 갖출 예정임. 릴라이언스는 2021년부터 100억달러(약 13조8500억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투자 계획을 추진해왔으며, 2035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노무라경제연구소와 인도 투자사 엠케이글로벌,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수익성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며, 기업 가치 상향 전망을 제시함

[\(임팩트온 2025.7.22\)](#)

### 4. GM-LG엔솔 'LFP 동맹'... 2027년부터 배터리 양산

-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를 통해 2027년부터 테네시 공장에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임. 이는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려는 공급망 재편의 일환임

- GM은 네바다주 태커 패스 광산에 3조1300억원을 투자해 연간 8만 톤의 리튬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전기차 160만 대분에 해당함

[\(한국경제 2025.7.23\)](#)

## 국내 기업

### 1. 현대모비스, 스페인 배터리 공장 채용 본격화...폭스바겐 일정 맞춰 가동

- 현대모비스가 스페인 파멜로나 인근 엘오르스 계곡에 위치한 배터리 조립 공장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현지 채용에 착수함. 해당 공장은 내년부터 폭스바겐과 스코다 전기차 생산 일정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며, 약 350~400명의 인력 채용이 예상됨

- 스페인 공장은 정인보 현대모비스 스페인 법인장 지휘 아래 이미 100명 이상의 한국 기술인력이 현지에 파견돼 설비 및 초기 준비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루 2025.7.23\)](#)

### 2. 16.4조 '물 배터리' 양수발전 시장 열렸다... 건설 빅4 수주전 치열

-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물 배터리'로 불리는 '양수발전'이 주요 대응책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음.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발주하는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이 새 먹거리로 급부상함

- 8월에 진행될 흥천 양수발전 입찰에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빅4 건설사가 맞붙을 예정임. 흥천 양수발전은 오는 8월 11일 입찰이 예정돼 있어. 13일까지 평가를 거쳐 14일 개찰할 예정임

[\(조선비즈 2025.7.23\)](#)

### 3. 삼성SDI, LT정밀과 '동맹'... 美 GM 합작 공장에 배터리 캔 공급

- LT정밀이 삼성SDI 배터리 공급망에 진입할 전망이다. LT정밀은 '범(汎) LG가' 기업으로, 삼성SDI와 거래하는 건 처음임

-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가 제너럴모터스(GM)와 미국 인디애나주에 건설 중인 합작공장 각종 배터리 캔 공급사로 LT정밀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됨. 삼성SDI-GM 합작공장은 오는 2027년 가동될 예정으로, LT정밀은 이에 맞춰 각종 배터리 캔을 공급할 계획임

[\(전자신문 2025.7.22\)](#)

### 4. 한화에너지, 이탈리아 600MW 규모 BESS 사업 승인 획득

- 한화에너지가 유럽 3대 BESS 시장인 이탈리아를 본격 공략하기 시작함. 22일 한화에너지에 따르면, 회사는 이탈리아 환경에너지안보부(MASE)로부터 BESS 사업 6건에 대한 승인을 획득함. 이번 인허가는 이탈리아 BESS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뜻임

- 한화에너지는 향후 입찰에 도전해 풀리아와 캄파니아 지역에 걸쳐 총 600MW 규모 ESS 설치를 추진함

[\(더구루 2025.7.22\)](#)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7.18(금) ~ 2025.7.24(목)

제공일시 2025 7 2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 중국, 6월 태양광 신규 설치량 85% 급감...보조금 철회 여파

- 중국의 6월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이 전월 대비 85% 감소한 14GW(기가와트)에 그쳤으며,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중단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채산성을 흔들었다는 분석이 나옴

- 블룸버그는 23일(현지시각) 중국 국가에너지국(NEA)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으며, 이는 보조금 정책 종료 직전 설치가 몰린 5월의 93GW와 비교해 급감한 수치라고 전했다

- 중국 정부가 6월부터 종료한 규제는 ▲고속 성장해온 주택용 태양광 설비에 대한 설치 제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고정가격 보호 폐지 두 가지로, 투자 유인 약화로 수요가 급속히 냉각됨. 이번 보조금 철회 조치는 중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자생력 강화와 시장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음

- 중국은 일반적으로 연말에 발전설비 설치가 집중되지만, 올해는 지원금 정책 종료를 앞두고 5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음.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중국이 한 달간 설치한 용량이 다른 어떤 국가가 2024년 한 해 동안 설치한 것보다 많았음

- 풍력 설비도 6월 5GW로 줄어 5월 26GW에서 크게 하락했으나, 석탄발전 등 열병합 설비는 소폭 증가해 8GW를 기록했음

- 중국 태양광 업계는 상반기에 수요가 집중되며 하반기 수요 부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이번 수치는 용기실리콘자재(隆基綠能, Longi Green Energy Technology), 통웨이(通威, Tongwei) 등 주요 태양광 기업들에 특히 부정적 신호로 해석됨

- 중국 5대 주요 태양광 제조사인 JA솔라, 진코솔라, 용기실리콘자재, 통웨이, 트리나솔라는 2025년 1분기에만 총 80억위안(약 1조5000억원) 이상의 순수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 기업들은 설치량이 급증했음에도 판매가격이 원가를 밑돌아 상반기 순수실이 확대됐다고 보고했으며, 수요가 급증해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임

-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수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과잉 공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변화가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공급망과 가격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음

[\(임팩트온 2025.7.24\)](#)